

“구호로 세상 바뀌지 않아... 행동하고 실천하라”

최근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 펴낸

일본 조동종 운소지 주지 이치노헤 스님 인터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지 67년이 지났다. 반세기가 흘렀지만 한일 양국이 가진 갈등의 응어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스님은 현재 일제 강점기의 아픔을 담고 있는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을 설립해 문헌이던 한일 불교사를 발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돌며 자신의 종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질렀던 과오의 흔적들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의 침략 행위를 담은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를 발간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서면으로 진행된 본지와와의 특집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종단, 조동종의 침략 행위를 인정하고 “불교의 근본정신을 저버린 일”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 만행 중 일부에는 안중근 의사의 차남 안준생이 이토의 아들에게 사죄를 하도록 회유한 일도 포함된다.

최근에 벌어진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평화비 말뚝 테러에 대해서는 “일본 우익 세력의 자금 모으기 퍼포먼스”라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진정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불교적 관점에서의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구호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치노헤 스님과의 일문일답. 일본어 번역은 군산 성불사 주지 종결 스님이 도움을 줬다.

최근 군산 지역의 일제 강점기 흔적들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현지를 조사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다. 일본에서는 전쟁자료를 보존해하고 기록해서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쟁 당시 어두운 기억을 상기하고 싶지 않아서다.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알고자 하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물건이나 사진은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는 종단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다. 불교의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불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기본은 항상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다. 국가나 사회, 교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작업들은 일본 불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조동종은 전쟁 당시 한국사회

와 불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일본 조동종은, 다른 일본 불교종파와 함께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종교적으로 적극 협력했다.

특히 1932년 10월 장춘단공원에 설립된 ‘히로부미사(博文寺, 현재 신라호텔)’의 초대 주지를 조동종 승려가 맡았다. ‘히로부미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는 절이었다.

2대 주지 우에노 순에이(上野 舜頌)는 우가키

일본 불교, 침략 전쟁 동참

“불교 근본정신 저버렸다”

조동종 과오 조사... 책 발간

강점기 사원 목록 새로 발굴

소녀상 평화비 말뚝테러는

다우의 자금 조달 퍼포먼스

불교적 실천 위한 연대 필요

(宇垣一成) 총독이 제창한 ‘심전개발(心田開發, 조선인의 일본화를 목적으로 한 정신개조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 1939년 10월 15일에는 안중근 의사의 차남 안준생(安俊生)을 ‘히로부미사’에 이토 암살을 숙죄하는 ‘사죄 참배’를 회유하기도 했다.

1945년 한국이 해방되고 조동종은 서울에서 별원을 철수하면서도 봉은사 주지를 흥태욱에게 맡겼다. 흥태욱은 봉은사 개건 당시 일본군 희생자 위령탑을 세운 ‘친일파 승려’다.

이런 활동들은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에 조동종이 뿌리 깊게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들이다.

최근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라는 책을 출간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조선 침략기에 모든 일본 종교가 전쟁에 협력했다. 침략행위에 대한 협조로 일본불교는 ‘불교의 근본정신’을 버렸고, 책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부는 근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가는 과정과 거기에 조동종이 어떻게 개입된 것인지를 그렸다. 후반부는 함경북도에 일본이 만든 군사 도시 군도(軍都)와 나남(羅南)에 창건된 조동종 사찰 난젠지(南禪寺)에 조정을 맞추었다. 또한 권말에 첨부한 ‘조동종사원·포교소 목록(1902~1944)’, 새로운 자료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고했으면 한다.



이치노헤 쇼고(一戸彰晃) 스님 1949년 아오모리현 출생으로 고마자와대학(駒澤大學) 대학원 영미문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아오모리현(青森縣) 운소지(雲祥寺)·주지이자 동국사를 지원 하는 모임(동지회) 회장이다. 이밖에도 원죄 ‘사야마(狭山) 사건을 생각하는 시민집회’ 실행위원, ‘인권·평화·환경’ 운동단체 ‘촉광(燭光)’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조동종의 전쟁(2010)>,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엇을 했나(2012)>가 있다.

최근 소녀상 평화비 말뚝테러로 한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침략 신사)의 저자 츠지 미노루는 “이번 일본인의 말뚝테러가 우익 자금 모임을 위한 퍼포먼스”라고 갈파하고 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면 반드시 머리를 치켜든다. 그리고 그 표적은 꼭 한국이나 중국이다. 정말로 한심한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동지회 회원수는 25명 정도다. 큰 모임은 아니지만 회원 모두가 침략 전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동국사를 통해서 묻혀 있던 한일불교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불교교류를 통해 불심을 되찾는 일이다.

1차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동국사에서 ‘치욕의 36년 일제 유물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 16일에는 2차 사업으로 ‘참사문(懺謝文) 비문 제막식’을 동국사에서 봉행한다. ‘한일 불교인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양국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일로 받드는 종교다. 정치나 경제에 좌지우지돼서는 안되며,

‘마음의 평화’만을 외쳐서도 안된다. 불교는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며, 불교적 관점에서 끈질기게 평화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불교연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8월 15일이다. 한일 양국 국민과 불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후 67년이 지났고,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연구하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불교계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한국 불교계에는 일본 불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지금이야말로 이 불신의 벽을 뛰어 넘을 때라고 생각한다.

양쪽 모두 사실을 검증하고, 객관화해야 한다. 그래야 한일 불교교류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치노헤 스님은 인터뷰를 계승으로 마무리했다. <법집요승경(法集要勝經, 일본에서는 ‘갑홍화’)>의 한 구절이었다.

“시방으로 마음 찾아 헤메었으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네. 남도, 각각의 자기가 사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신중일 기자 motb79@hyunbul.com

일본불교의 ‘두 얼굴’

어떻게 형성됐나

한국에서 일본은 ‘가까우면서 먼’ 나라이다. 허물며 일본 불교에 대한 인식은 더욱 미약하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일본불교사의 거두 스에키 후미히코 등의 저서가 번역돼 출간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먼저 스에키 후미히코의 <근대일본과 불교>에서 당시 일본 불교의 공과 과를 찬찬히 기술했다. 근대 일본에서 불교는 사상의 한 축이었다. 전통종교인 신도는 논리가 취약했고, 유교는 봉건적 위계사상이 강했다. 근대의 불교는 ‘전통·근대·탈근대’라는 당시 일본 근대사상의 과제를 풀 수 있는 사상으로 급부상했다.

1894~1945년 시기의 일본 불교는 국가에 종속돼면서 사상적인 빛을 잃는다. 정토종의 기요자와 만시(清澤滿之)는 “국가에 일이 있을 때는 총을 메고 전쟁에 나가도 좋다”고 독려하기도 했으며, 선의 세계화를 추구한 스즈키 다이세츠 역시 “국가를 위하는 것이 종교를 위하는 것”이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논리는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임제종- 전투기 모금운동 전개

조동종- 日 전승기원법회 봉행

좌선을 군사훈련 방법으로 활용

목조선의 승려인 브라이언 다이젠 빅토리아의 <전쟁과 선>은 침략 전쟁 당시 불교의 역할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전쟁을 지원한 선사와 학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종단들의 침략 전쟁 지원 행위도 기술돼 있다.

이에 따르면 임제종의 경우 과거 군사적 전통이 갖든 회향문을 되살리려고 했으며, 군대에 전투기를 기증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임제종 묘신파의 모금활동은 두드러진다. 이 분파는 연합종단의 1/3도 안됐지만, 종전까지 해군에 세 대의 전투기를 원조했다.

또한 당시 선승들은 좌선을 장교와 사병, 군수 산업인력의 훈련 방법으로 활용했다. 훈련 강습은 공장 기숙사나 인근 사찰에서 한 주간을 걸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좌선의 실천에서 유래하는 덕이 무한한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항상 권유받았다.

최근 발간된 이치노헤 쇼고 스님의 저서 <조동종은 조선에서 무슨 일을 했나?>는 침략전쟁 당시 종단 과오를 짚고 있다. 책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에 170개의 조동종 사찰과 포교소가 있었고, 군산 동국사도 조동종 소속이었다. 당시 조동종은 조선과 만주에서 ‘전승기원법회’를 봉행하는 게 주요한 임무였다. 함경도에 건설한 군사 도시 중 하나인 나남에도 남선사라는 사찰이 건립돼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 사찰에는 장병들의 유골 안치실도 마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사원들은 선무 교화에 힘을 불어 넣었고 이는 종단 사찰 소속 포교소의 급증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신중일 기자



성명서

- 암도스님은 자중하시라 -

귀의 삼보하옵습니다.

암도스님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추대한다는 말이 암도스님 문도측과 현 백양사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에 실현한다는 소문이지만 현재까지도 백양사 전체 문도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본인의 지인과 권속들에게만 알린다고 하니 본인들도 뭔가 거림직한 모양입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헌 중법을 유린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또 다시 종단을 우롱하는 해종행위에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계종 총림의 기준이 하향 됐다 하여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총림의 방장은 적어도 최소한의 안거를 거쳐야 하는데도 암도스님께서는 운문선원에서 딱 한철만 지냈을 뿐입니다. 또한 총림대중들의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암도스님에 대한 백양사 대중들의 심정은 매우 불편하기 이를 데 없으며 측은지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백양사는 지금 극심한 내홍과 외홍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현재 주지스님은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해 호계원 초심에 정계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몽스님의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겨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수산 방장스님을 거역하고 천인공노할 불법 도찰로 인해 종단과 백양사를 초토화시키고 고도 모자라 각종의 성명과 제안서들로 중도들을 혼란케 하고, 중헌 중법을 유린하였습니 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틈을 타서 이들 세력과 결탁하여 안거생심 방장 욕심을 내고 또 다시 백

양사를 자신들의 토굴처럼 사유화 하려는 음모야말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암대중사께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백양사에 총림을 설치하셨습니다. 서용대중사께서도 총림을 다시 복원하여 수많은 남자들을 제접 하시었고 근대 한국 최고의 선승들도 운문암을 거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그 기상은 높았습니다.

서용대중사께서는 이를 면면히 이어가라는 뜻에서 광재 자용스님을 후계자로 부촉하셨고 수산대중사께서도 광재스님을 부방장으로 유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선대 대중사들의 뜻을 받들어서 방장스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대중들의 의무라 할 것이며, 최소한 산중총회를 열어 본사대중들의 뜻을 묻는 것이 도리이고 절차이자 법적 요건입니다. 그러나 총무원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대중의 뜻을 물어보라는 것도 무시하고, 더구나 중앙총회에서 정상화 이후 방장과 주지, 총회의원을 선출하라는 결의마저도 일거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물며 본인들의 사욕을 채우려 온갖 불법 편법을 사용하여 막무가내식으로 방장을 추대한다하니 이는 막행의 끝을 보고자 하는 것이며, 대중을 파회합하는 짓이 못할 바라이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양사는 시몽스님이 물러나는 시점이 바로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암도스님은 바로 이 날이 되기 전에 원로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방장의 지위를 넘보려 하고 있으나, 조계종과 백양사가 아무리 허술하다 하더라도 중도와 문도들이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발 자중하시길 권고 드리며 아울러 같이 경거망동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불기 2556년 8월 6일

고불총림 백양사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성오 (전 백양사 주지)